

신부의 아름다움

11/03 월

렘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살전 4:3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고,

살전 5:23-24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벧전 1:15-16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엢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11/04 화

사 28:5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며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롬 6:19, 22

19 여러분의 육체가 악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려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엢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 60:1, 7, 9, 13, 19

1 일어나라! 빛 비추어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로 솟아올랐음이라.

7 “게달의 양 떼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느바웃의 숫양이 너를 섬기리니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올려져 기쁘게 받아들여지며 나는 내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9 참으로 해안 지역들이 간절히 나를 부르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서 너의 자녀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은금도 함께 가져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바치리니, 그가 너를 아름답게 한 까닭이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성소의 터를 아름답게 하고 나는 내 발 둘 곳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19 낮에 너를 비출 해가 더 이상 없고 너를 비출 달도 없을 것이나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리라.

사 62:3 또한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네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의 두건이 되리라.

11/05 수

렘 5: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엢 6: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21: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마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13:14-15

14 또한 이사야의 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5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듣는 데 둔하여지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사 6:9-10

9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잘 들어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잘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알고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11/06 목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계 7:17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1: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 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출 17:6 이제 내가 거기 호렵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고전 10: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11/07 금

계 19:8-9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시 50: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고후 3:15-18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사 33:17 네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 그들은 아주 머나먼 땅을 주목하게 되리라.

사 45: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장차 내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만든 것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여라.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1/08 토

아 4:7, 10-12, 15-16

7 “내 사랑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대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대요.

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그대의 관유 향기는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11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대요.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

15 그대는 동산들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요.”

16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향기를 날려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이 동산에 와 그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드시게 하여라.”

아 6:3-4, 13

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아 8:13-14

13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14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11/09 주일

눅 10:38-42

38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40 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41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42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단 2: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